

* 지난주 강단제목 : 8가지 절대망대의 비밀을 알려준 창세기 (창 3:15, 요일 3:8)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임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서교독	75. 마태복음 6장 / 인도자와 회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5-28)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33)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다같이
증보의 기도	(1부) 여동훈 장로 (2부) 박동영 장로
성경봉독	여호수아 1:7-8(구약 320쪽), 디모데후서 1:13-14(신약 343쪽) / 인도자
찬양	(1부) 내 영혼아 찬양해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나의 예수님께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충성된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미션과 복음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후서-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새 힘을 얻으리라 /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도다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주의 백성 불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최명홍 장로 (2부) 정세완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박인자 권사 (오후) 임혜연 집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신혜선 권사

(오후) 정수환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사온찬양대
설교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연합남선교회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령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하반기 전교인 전도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캠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전도요원 여러분과 전도캠프를 위해 헌금과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제58회 강남노회 가을정기노회가 10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참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3. 추수감사절(11월 15일)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으신 후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 자녀의 유아세례를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복음요일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심야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프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의 시간을 정하셔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쁜 및 교우소식

1. 성도 가정의 장례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당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재경 집사(이용동 집사) 부친 - 故 최성훈 성도님 / 10월 7일 소천, 10월 10일 발인.)
2.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0.12 강남노회 가을정기노회)
3.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요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프부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릭강제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프부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쿼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모집 중)

- 10) 복음영아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탐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화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화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일본전도집회가 '환란을 최고 축복으로(행11:19)'를 주제로 10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됩니다.
3. 237화요제자훈련이 10월 20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유럽전도집회 및 유럽산업인 특강이 '나를 살려라(행2:9-11)', '5포럼 시대 열려라(행18:1-4)'를 주제로 10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독일 임마누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0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오세아니아 램네프트대회(9.30~10.1)
1주차	세례신청(4), 하반기 전교인전도캠프(7~8) / 결혼선교예비학교(5), 세계RTS대회(6), 제23차 2026 세계군선교대회(9~11)
2주차	강남노회 가을정기노회(12) / 일본전도집회(13~14)
3주차	세례교육시작(18) / 237화요제자훈련(20, 덕평 RUTC), 램네프트데이(24)
4주차	종교개혁기념주일, 램네프트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25) / 유럽전도집회 및 유럽산업인 특강(27~29, 독일 임마누엘교회)

10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배승찬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는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김경희A (6층) 배승찬 양경심
안내위원	(위원장) 임근일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한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정심 임근일 최철규 여준석 최신혜 이마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장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강공이 김희권 임영순 김순자 유제숙 김미자 신혜선 김재규-장소녀 호민수 최재경 박인자 김일호 김춘례 이은희 이순덕 김용관-김정순 정향완 김주영 이영순 박난순 김갑래 전 진 김영순 박숙자 임소순 문길순 나경철-신현식 김경애 윤순옥 김신옥 정민호-이서은 전은정 여 명 김정연 한영화 홍명숙 오이라 이민형 유승환 최이현 이이연 황해주 김지수 임혜미 김태운 조현지 정예승 송길호 최승화 김소라 정수환 박찬열 최영국-김윤지 윤태자 김지후-이현주 이민수 김숙희 손혜옥 양은숙 김승훈 김혜미 김명철 장유미 한경숙 유영석 조부영 이효숙 김창균-임예진 김영희 임혜연 채송아 안선희 홍명숙 오유라 방주은 배준서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최정웅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김원일-전인숙 김희권 정세완-박희영 임소순 박점순 김재규-장소녀 김용관-김정순 유충현-강공이 김영순 윤순옥 문길순 오신자 김애경 배승찬-이 명 권혁복 김지수 이민수-김숙희 임경미 고진순 신승훈-박영인 조부영 최명홍-이계옥 호민수 임혜연 박지영 오국환 김지후-이현주 이 석 이세호 유경형-리종화 최보인 최일숙 유영석 안나근 여 명 배준서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김희권 김재규-장소녀 박찬재 김미자 박진수 윤성희 박학규 양정심 김애경 정민호-이서은 유경선 김갑래 정향완 김정순-김용관 최승화 임혜미 권혁복 김지후-이현주 최신혜 한경숙 박영인 이효숙 유경형-리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심방헌금	지복순 임상식-임민재
차량헌금	정윤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윤돈 최정웅 심한결-정지혜 김재규-장소녀 김용관-김정순 임소순 오신자 임영순 이영경 이은희 유승범 주은경 방주은 정수환 김순호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임혜연 김지후-이현주 오국환 유경형-리종화 최일숙
자유센터	정윤돈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2026년도 총계 530,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심한결-정지혜 김재규-장소녀 임소순 오신자 임영순 김용관-김정순 유승범 주은경 정예승 정수환 김지후-이현주 김순호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조부영 김창균-임예진 박동영-최진희 임혜연 오국환 최일숙 방주은
장학헌금	정윤돈 최정웅 심한결-정지혜 임혜미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유경형-리종화
어학연수	정윤돈 정수환
RUTC헌금	정윤돈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정수환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참사랑데이케어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9. 30.~ 2026. 10. 6.)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122,683,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83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1,688,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82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5,000,000엔 (한화 3,960,500,000원 / 100엔환율=89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김홍기 문길순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김장삼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이준영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운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도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수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윤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대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정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조동범 이세호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윤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유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지아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u> 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박천재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창남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8가지 절대망대의 비밀을 알려준 창세기

창세기 3:15, 요한일서 3:8

들어가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8가지 절대망대의 비밀을 알려준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탄의 머리가 깨지기 때문이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나는 날마다 잘못하고 죄를 짓는데 그러면 계속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승리할 수도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러나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함께 인류 문제의 근본적인 시작을 알려준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말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인류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은 날마다 선악과와 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간다. 죄를 짓고 사탄에게 속아 있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네 인물을 통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모델로 보여준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망대가 되는 것이다. 망대는 성을 지키기 위해 높이 세운다. 그 위에는 파수꾼이 있고 망대를 통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재산을 지키고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다. 영적인 망대도 마찬가지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믿음과 진리의 망대이며, 나와 가족과 가문,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망대이다. 그 망대가 결국 축복이 되고 산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응답이 된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망대를 세워 복의 근원이 되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바란다.

서론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 네 사건은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이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여덟 가지 절대망대이다. 창세기에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이 다 들어 있다.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의 시작, 사탄과 죄, 믿음과 복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 가정과 형제, 직장생활, 민족과 가문과 후대와 땅의 축복까지 말씀한다.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설계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끝없는 우주와 지구, 공기와 빛과 자연 만물이 모두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생겼다고만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믿는 것도 믿음인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언약에는 구원에 대한 언약과 축복에 대한 언약이 있고 축복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후대와 씨와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후손'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네 후손들만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다. 이 영적인 사실은 인간의 지혜만으로 깨달을 수 없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가 본 적이 없지만 성경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하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IQ가 높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닫지 못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성령이 함께하시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도시가 세워지고 목축과 음악과 금속 기술이 발전한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었다. 지금도 교역받지 못한 곳에 가면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인간 자체가 다른 단계의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열역학의 엔트로피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서울의 쓰레기를 아무리 한쪽에 모아 놓아도 쓰레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더러운 세상 속에서 복음 안으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래 안 씻다가 한 번 좋은 사우나에 가는 것보다 날마다 깨끗이 씻는 사람이 더 깨끗하다. 복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한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을 통하여 여러 지역과 민족이 퍼져나가는 내용이 나온다. 오늘날 인류에게 다양한 인종적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다양한 유전적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라도 조상에 게 있던 유전적 특징에 따라 피부색이나 외형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개도 같은 종 안에서 다리가 짧은 개, 긴 개, 여러 모습이나 오도 다양한 유전적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요즘은 ChatGPT를 비롯하여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있는 자료를 가져와 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AGI, ASI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나는 나중에 AI에게 "참된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고 물으면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시대도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금도 여러 질문을 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 시와 번역기술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237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지만 실제 언어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 휴대용 하나를 가지고 며칠 동안 현지인과 대화하면 그 부족의 언어까지 번역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아르메니아어는 사용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 무료번역 앱을 찾기 어려워 유료번역서비스를 사용해 봤는데, 영어도 영국식·스코틀랜드식·오스트레일리아식으로 나누고 프랑스어도 캐나다 퀘벡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차이까지 구분해 놓은 것을 보았다. 앞으로 각 지역과 부족의 언어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예전 같은 70개 나라 언어로 번역하려면 70개 나라의 사람을 구해야 하고, 음악을 만들려면 작곡가가 필요하며, 지파와 성어도 따로 필요했다. 이제는 시를 통하여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억양과 표현이 다른 영어와 프랑스어까지 구분해 번역하고, 여러 목소리의 성우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면 과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일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세계복음화하기 좋은 시대에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 교회도 산업과 전도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서명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었지만, 지금은 이런 기술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롯과 바벨, 에렉, 악갓, 니느웨 같은 이름들이 나오면서 도시와 왕국, 강력한 정치권력이 형성되는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던 성경은 12장부터 갑자기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과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로 갈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해 언약과 복음과 영육 간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 응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나 사회복지를 해 봐도 그렇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 생소하고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약 5년 동안 팀을 만들어 생명 길로 헌신하고 현장을 경험하니 조금씩 알기 되었다. 언어도 사업도 투자도 어떤 분야든 대충해서 서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현장에서는 몇 년 동안 24시간 체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과정도 필요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야곱도 오랜 세월 고생했고, 이삭도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을 지나갔다. 요셉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형들에게 팔렸다. 내가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형제들이 조급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도 형제가 셋 있는데 내가 누굴을 칭찬하면 뒤에서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잘못했다”고 속삭여 말하는 경우를 본다. 그래서 ‘형제는 형제구나. 부모 마음과는 다르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체질 속에 있으면 누군가를 잘되고 칭찬받을 때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인간에게 그런 체질이 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다른 사촌이 잘되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함께 아파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모두 박수쳐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것을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사람의 반응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나”고 하셨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무도 나를 시기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 응답도 없다면 “주여,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응답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공산도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우리 교회에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그 사람이 가다 드러난다. 처음에는 “나는 도둑놈 것밖에 없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생각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생각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요셉의 길을 가야 한다.

1. 첫 번째 절대당대 -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한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출발이 된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권능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도,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제대로 시작하기 어렵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인간의 문제와 해결의 답을 말씀 속에 허루 주셨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24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다. 부산을 목격자로 정하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라. 기다가 휴게소도 들르고 좌우로 길을 바꾸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목적이기는 부산이다. 계속 “부산 가야지”라고 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목적이자 갈라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밥을 먹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자녀를 키우고 취미생활과 건강관리를 해도 그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있어야 한다. 결혼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교회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향이 항상 깔려 있어야 한다. “왜 사느냐”고 할 때 돈 벌고 성공하고 자녀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먹고 놀고 연애하고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나를 붙잡는 것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세상에서 큰일을 했다고 떠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1년만 지나도 잊히는 것에 인생을 다 걸지 말고 영원히 남는 일에 시간과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대단한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방향만 바르게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다. 나도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다. 전라도 목포에서 장애인들과 교유,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여기서 평생 이 사람들과 살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문을 계속 여셨다. 곧 아프리카 케냐에도 가려고 한다. 약 13년 전에 연결된 현장인데 그동안 많은 응답이 있었다. 처음 아프리카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땅끝을 향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계속 문을 여시는 것이다. 그곳의 학교도 성장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의대로 보낼 후대도 생기고 있다. 한국 병원에서 인턴ships 한 한 학생은 “한국은 만리나라였다. 그사이 50년, 100년 앞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의료 시스템과 교육까지 전달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믿기 바란다. 현지에는 말라리아 같은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갈 램네티들에게는 농담처럼 “유서를 쓰고 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현장을 실제로 보고 그곳의 필요를 알고 생생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다.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집중해서 훈련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열정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 저녁은 하지 마시다”라고 했다. 세계복음화 안에 이런 소중한 문들이 다 들어 있다.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은 똑같다. 몇천억, 몇조가 있어도 하루에 먹는 것은 같다. 유명한 기원가들도 늘 명품만 입는 것이 아니라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살아간다. 세상적인 소유 자체가 인생의 본질은 아니다.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2. 두 번째 절대망대 - 창세기 3장의 타락과 창세기 3:15 그리스도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참 왕으로 오셨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문제를 해결하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열리고 진리와 생명이 회복되었다.

3. 세 번째 절대망대 - 창세기 6장의 홍수와 방주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을 보여준다.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에 빠지고 무속과 점술, 우상과 귀신문화, 중독 속에 살아간다. 노아시대와 같은 모습은 지금도 계속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짧으나 가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창세기 6장이 보여주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4. 네 번째 절대망대 -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대이다. 사람은 성공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있으면 결국 바벨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망대가 아니라 나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공부도 제대로 24시 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시작의 시동을 걸면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동차 엔진은 시동을 걸어 놓으면 계속 돌아간다. 기도도 중요한 시간표와 전환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 전체가 기도의 방향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벨탑의 망대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5. 다섯 번째 절대망대 -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는 룯과 세우지 않고 “나를 떠나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라(창13:9-10)”며 양보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순종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는 절대 믿음의 망대를 배워야 한다.

6. 여섯 번째 절대망대 - 이삭의 절대 순종

이삭은 순종과 운운의 사람이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목회자에게, 부모에게, 직장에서 계속 불순종하려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 그러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도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만 내려고 할 때가 있다. 안 좋은 것만 찾아내고 불평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과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라는 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속에서 응답의 길이 열린다.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라고 했다. 이삭과 같은 순종 속에서 백 배의 축복을 받아 3천 제자, 40만 제자, 천만 제자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후원자와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7. 일곱 번째 절대망대 - 야곱의 절대 은혜

야곱은 성격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알았다. 형에게 팔족 한 그릇

을 주고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귀하게 여겼다. 세상의 욕심은 내려놓아도 믿음과 복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야곱이 욕심만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맡은 양을 잃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했다. 요령과 잔머리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귀하게 여긴 것을 위해 열심과 헌신을 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거저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8. 여덟 번째 절대대대 - 요셉의 영적 서밋

마지막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영적 서밋의 절대대대이다. 요셉은 237치유서밋의 망대를 세웠다. 어려서부터 꿈과 비전이 있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도 용서했다. 우리 같으면 이를 갖고 원망하며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냐고 했을 것이다. 감옥까지 갔으니 스트레스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다른 망대가 있었다.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산 것이 아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배운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자기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누가 죽이려고 하든 살리려고 하든, 총리가 되면 노예가 되면 그것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고 원망하고 조급해지며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라고 했다. 우리의 절대목표가 이것이다.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어야 한다. 이어서 바로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창41:38)”,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창41:39)”고 했다. 세상은 단순히 IQ만 높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큰 지혜로 보일 수 있다. 우리 아버지를 두고 삼촌이 “너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잔머리가 많냐.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정의를 생각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지혜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현장을 살려야 한다. 부족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결국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권한을 맡겼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당시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웠다.

결론

캠프현장에 갔을 때 이 여덟 가지 절대대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분에도 말할 수 있고 1시간에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망대이다. 둘째,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는 구원의 망대이다. 셋째, 홍수로 모든 것이 무너져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방주의 망대이다. 넷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믿음의 절대대대를 세워야 한다. 다섯째, 아브라함처럼 절대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여섯째, 이삭처럼 이유 있는 절대 순종과 복종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일곱째, 야곱처럼 쓸데없는 세상 욕심이 아니라 참된 영적 욕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인내해야 한다. 여덟째, 요셉처럼 우리와 후대가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창세기에 숨겨진 여덟 가지 절대대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70 제자를 찾아 70지역, 70종족, 70나라와 237나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협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랙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팝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합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장)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희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웅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60여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